10.15686/fkl.2025..64.114 OPEN ACCESS

# 모성의 분할과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윤리

## -조선시대와 현대의 모성성 논의를 경유하여

최기숙
연세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교수

목차

1 사건화된 '반-모성' 담론과 '모성 신화'의 재귀
2 조선시대 모성성의 훈육과 규범화된 어머니
3 조선시대 모성의 분할과 대리-수행, 신분제와 착취의 딜레마
4 포스트휴먼 시대의 모성 장치와 테크놀로지
5 모성 스펙트럼과 네트워크, 새로운 윤리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의 미디어에 재현된 반-모성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근대(조선시대)의 모성성에 대한 해석학적 오류를 해명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모성 테크톨로지와 스펙트럼에 대한 인문학적 제언을 제출했다. 아울러 AI와 기계, 기술이 인간과 네트워킹하며 공존하는 포스트휴먼시대에 모성을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사유하여, 모성이 정체성이 아니라 기술, 역할, 스펙트럼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해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첫째, 조선시대에 여성 교육의 실재를 분석하여, 조선시대에도 어머니로 태어나기가 아닌, '어머니 되기'가 논의되었다는 실상을 해명했다. 둘째, 조선시대에 분할이 신분에 따라 위계적으로 수행되어 흡수, 착취, 박탈된 과정을 해명하고, 모성의 수혜자와 대리-모성 사이에 신분제를 가로지르는 신체적, 감정적, 정서적 연결성이 발현하는 역설과 모순을 논의했다. 셋째, 모성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포스트휴먼 시대에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어떠한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 분할로 수행되는지에 주목했다. 넷째,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사물, 인간의 상호작용이 확산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새롭게 수행되는 모성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비평적으로 사유했다.



국문핵심어: 모성, 모성 신화, 반모성, 모성 담론, 유모, 내훈, 역량


## 1 사건화된 '반-모성' 담론과 '모성 신화'의 재귀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친모의 아동 학대는 '사건화'되어 대중의 공분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이슈가 되고 있다.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1] 친모가 4세 유아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2] 전남자친

1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23년 6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64090: 2023.7.27. 목요일 확인). 이미 남편 B씨와

구의 아기라는 이유로 한파에 신생아를 버린 20세 친모에 대한 기사[3]를 접한 이들은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이럴 수가”, “엄마라는 사람이”, “친모가 미친”(이상은 해당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발췌)과 같이 공분했다. 해당 사건은 유아 살해라는 반인륜성과 범죄상에 집중하기보다, 일그러진 모성, 반-모성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모성에 도달하지 못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감정과 사고의 연쇄 반응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규정했다.[4] 자기 보호에 취약한 아동을 폭행, 학대, 살해하는 행위는 생명적, 인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반의 사회적 안전성을 환기하는 사회적 이슈다. 친모의 아동 학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 글이 주목하는 바는 그것이 담론화되는 방향과 방식이 시대변화의 임계점을 거슬러 퇴행했다는 점이다.

우선, 어머니는 ‘불완전한 보통의 인간’의 범주 안에 있기에, 희생과 헌신, 자비와 사랑의 존재로 재현되는 ‘완벽한’ 모성의 이미지는 일종의 신화다.[5] 보브와

---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여 4세 여아의 몸무게가 7kg에 불과할 정도로 학대하고,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라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일보』 2023.7.2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063011113803855)

3 ‘“前 남친 아이 키울 마음 없다”…탯줄도 안 뗀 아들 고성 숲에 유기한 20대 친모’ (『세계일보』 2023.01.27. 10:08:22 수정: 2023.01.27. 15:25:56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7504719?OutUrl=daum)

4 일본에서는 자녀에게 유해한 ‘毒母’의 개념을 통해 어미니의 가해성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다(모토하시 리에, 이은주 역, 『포스트 젠더학의 가능성』, 소명출판, 2022, 74-75쪽).

5 재클린 로즈는 어머니라는 주제는 온통 이상화로 가득하며, 이 점이 페미니스트 비평의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숭배와 혐오』, 창비, 2020, 40쪽). 모토하시 리에에 따르면 모성은 자명한 것처럼 사용되었지만, 실은 매우 애매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다. 모성과 부성을 ‘부모성’,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전략적으로 ‘육아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겨난 배경이다(모토하시 리에, 2022, 28; 32; 34쪽) 루이스 부르주아의 최근 회고전(“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 일본 도쿄 모리 미술관. [2025.1.5.일요일 관람])은 출산, 수유,

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성은 양가적이며, 토니 모리슨의 소설『술라』에 등장하는 '에바'가 '그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6]라고 고백한 바처럼,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힘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바람직한 어머니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사건화된 유아살해(아동학대 포함)를 둘러싼 미디어와 대중의 시각은 사적 공간으로서 가정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나 아동에 대한 부모/성인의 통제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인륜성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지는 대신, 이른바 '모성'을 갖추지 못한 '비-출산' 여성을 '반-모성'과 등치시켜 여성 개인에 대한 분노로 선회하는 일종의 인식론적 퇴행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비판된 '모성 신화'의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는 문화정치의 힘을 발휘한다.[8] 무엇보다 이른바 모성 담론은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에게 생애주기의 극히 일부에만 주목해 모성 전체를 커버하는 모순을 함축한다. 이는 여성을 출산을 매개로 하여 국민 생산의 도구로 간주하는 종속적 지위를 강화하는 문제와 연동된다. 예컨대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기능을 종료한 노년 여성이 여성도, 모성도 아닌 '노인', 또는 '무용한 존재'로 담론화되어,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홀대받거나, 의료보험, 돌봄 복지의 사회/국가적 처리 대상으로 라벨링되는 과정이야말로, 모성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신화적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역설한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을 모성에 대한 이해의 협소함, 왜곡, 취약성, 모순으로 간주하며, 모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로부터의 퇴행, 현존하는 양육 본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자 편향성으로 명명한다.[9] 모성을 여성의 본능으로 전제하는 것은 포

---

양육의 '고통'을 여성의 신체 안팎을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모성 신화를 비판했다. '완벽한' 모성을 '평범한, '기본적인', '당연한' 모성으로 담론화하는 것이 신화화의 요체다.

6 토니 모리슨, 송은주 역,『술라』, 문학동네, 2015, 107쪽.

7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역,『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51쪽; 모토하시 리에, 앞의 책, 85-88쪽 등.

8 친모의 아동 학대이기에 천인공로할 패륜이 된다면, 계모의 아동 학대는 예측가능한 범죄라는 뉘앙스가 함축되는 위험성도 있다.

9 여기에는 부모/성인의 아동에 대한 통제권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관여되지만, 논의 집중성을 위해 '모성'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문제로 한정한다. 학술적 개념으로서의 모성은 생물학적인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사회구성물인 '제도적인 모성'과 '경험적인 모성', '이데

유류의 보편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이 어머니인 여성, 잠재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인 여성에게 특화되고 한정된 고유한 성향으로 여겨진 데에는 생물학 연구의 젠더 편향성과 연계된다.[10] 모성이라는 개념과 이해는 그 수혜자에게 감지되는 경험적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다.[11] 예컨대, 온종일 우는 아기를 살해하지 않는 돌봄은 타고난 모성으로 행하는 본능적이고 감정적 영역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과 지성적 사유가 작동한 결과다.[12]

이 글에서는 사건화된 '반 모성' 담론이 '반인륜'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모성 신화라는 유령의 재귀로 판단한다. 유아 살해를 반-모성으로 조명하며 공분하는 과정은 모성 신화의 해체가 상징하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 그에 대한 새로운 윤리와 감수성의 재학습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백래시의 위험성을 함축하기에 문화적 성찰과 비평이 필요하다. 이는 모성 신화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사랑'과 '헌신'이 사실상 정서적 교류에 근거한 탈기능적 '돌

---

올로기로서의 모성' 등을 구분하지만(최은영,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12쪽), 이 글에서는 일상과 문학/문화 담론에서 미분화된 채 통용되는 모성 이해의 다층성을 포괄하기 위해 '모성'으로 통칭한다.

10 예컨대, 찰스 다윈은 수탉은 암컷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알을 잘 품을 수 있으며, 수컷의 두뇌에도 후천적 본능이 존재하기에, 모든 동물은 양성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세라 블래퍼 허디,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사이언스북스, 2010, 331쪽). 도나 J. 해러웨이는 과학 연구실에서의 젠더 편향성에 대한 관찰로부터 모든 지식은 '상황적 지식'이라는 관념을 이끌어 내고 '겸손한 목격자'의 위치성을 강조했다(도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 만나다』, 갈무리, 2006).

11 성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랑의 과도한 통제성과 폭력성(예컨대, 가스라이팅, 부부 간 강간)이 사회적, 법적 이슈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사랑을 명분으로 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에 대해 아이가 이를 학대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미약하다. 아동학대는 극단적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영화화되었을 때(예컨대 〈도희야〉[2014. 정주리 감독], 〈미쓰백〉[2018. 이지원 감독], 〈플로리다 프로젝트〉[2018. 션 베이커 감독] 등)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 편이다.

12 소설 『어머니의 유산』에서 요양 병원에 있는 노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딸들의 대화(미즈무라 미나에, 송태욱 역, 『어머니의 유산』, 복복서가, 2023, 226쪽)는 모성의 의미가 타자적 해석에 따라 재구성되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음을 시사한다.

봄'에 대한 기대이며, 이것은 노년기 여성에 대한 자녀와 사회의 돌봄에 상응하는 불완전성을 공유한다는 인식과 연결된다.[13]

이 글에서는 '온전한/완전한'이라는 수식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모성'의 개념이 언술적으로 신화화되고 제도적으로 규정된 바대로의 본성이 아니라, '되어가는' 수행성의 영역이며, 대리·협력·분할 가능한 역량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전근대 조선시대로부터 인간-AI-사물-사회(기관, 제도)가 네트워크 된 기술정보시대를 교차하여 논증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의 여성 교육서인 『내훈』[14]으로부터 여성생애 자료에 서술된 '대리 모성'(계모, 양모 등)과 모성 분할(유모)의 실제가 투영된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이때 모성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사회의 역사적·이념적 특성에 따라 모순과 딜레마가 발생하는 과정을 조선시대를 모델로 분석하여, 이를 보편적 사유로 전환하는 이론화 과정으로 수행한다.[15] 이를 위해, 모성을 대리. 협력, 분할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 제도에 개입하는 테크놀로지와 네크워크의 사례 분석을 경유하고, 모성의 실천을 둘러싼 새로운 현상과 사고 실험을 다룬 21세기 한국과 세계의 미디어 기사(현실)와 소설(상상력) 등을 참조한

13 예컨대, 린 틸먼은 여섯 살 때부터 싫어했던 어머니가 병들자 돌본 경험을 기술하면서 이는 '가혹한 의무'(10쪽)였고, '내 삶이 좁아진 듯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했다. 나는 내 삶의 일부를 포기'(69쪽)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린 틸먼, 방진이 역, 『어머니를 돌보다』, 돌베개, 2023). 일본의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입에 꽉 문 채 숨을 컥컥거리면서 장시간 대기하느라 지쳐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런데도 그 무언가가 깨지지 않았으리란 보장은 없는 그런 체험이다.'라고 고백했다(요시모토 바나나, 김난주 역, 『여행 아닌 여행기』, 민음사, 2003, 294쪽). 맹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몸값을 받고 제물이 된 심청(한국 고전소설 〈심청전〉의 여주인공)은 결코 현실적 효의 모범 사례가 아니다.

14 소혜왕후,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5 이 글에서는 해당 논의가 모성에 대한 역사적 서술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전체 역사 서술을 다루는 대신, 주요 쟁점을 선별해 역사 시기와 지역 간 연결성 논의로 설계했다. 언어권별 문학사적 서술이 해당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없으며, 의제 중심으로 모성 논의를 연결해 모성 이해의 탈신화화 사유와 실천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국적과 언어가 다른 문학 작품을 교차시켜 해석하는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최기숙, 「'표변'의 한국고전문학, 연구와 교육: 글로벌·디지털 환경, 젠더 감수성, (기계)번역을 경유하여」 『고전문학연구』 제62호, 한국고전문학회, 2022ⓐ를 참고.

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포스트휴먼 시대에 모성의 분할과 모성 테크놀로지의 수행에 필요한 윤리와 감수성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모성성의 훈육과 규범화된 어머니

조선시대의 여성 규범서인『내훈』에는 여성이 살면서 지켜야 할 언어와 행동의 규범이 세세하게 기록된다. 여기에는 어머니로서의 태도와 역할도 서술된다. 이는 규범서의 존재 자체가 모성을 본성이 아닌, 역할과 태도로 전제하여, 가르쳐서 정향하게 하는 후천적 학습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16]『내훈』에는 '여자의 네 가지 덕'에 해당하는 부덕, 부언, 부용, 부공 등이 강조되며, 왕을 대하는 신하(남성 관리)가 지켜야 할 예의와 덕목도 소개된다. 남성이 신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합습해 '되어가는' 것처럼, 여성도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노력을 통해 '되어가는' 것으로 간주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막론한 누구라도 예의, 교양, 윤리, 감정을 '타고나지 않으며', 성별을 막론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인격성과 신분, 교양에 맞게 '되어가는 존재'로 인식했다.[17]『내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 예컨대 "나라와 집안의 치란흥망이 비록 남편과 군주의 총명함과 우매함에 달려 있으나 부녀자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에도 관계된다. 따라서 부녀자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소혜왕후, 2011, 39-40쪽)와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여계』에서 여성성의 주요 코드로 卑, 賤, 靜, 柔를 언급하여, 여성을 낮고 약한 존재로 규정한 것은 사실이다(김언순,「예와 수신으로 정의된 몸」,『한국문화사 35-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2011, 130-131쪽). 이숙인에 따르면 남성의 덕에는 위의(威儀)·탐구(探究)·분별(分別)·결단(決斷)·의(義)등이, 여성의 덕에는 유약(柔弱)·순종(順從)·화유(和柔)·정절(貞節)·리(利) 등이 등을 귀속시키는 성차별적 양상을 보인다(이숙인.「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한국학』29-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56-364쪽). 단, 여성성에 대한 이해와 모성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양반 남성들은 자기 집안의 여성(어머니, 아내, 딸 등)이 '세속 여성'과 달리 탁월하다고 강조한 글을 남겼다(이런 시각이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관점에 관해서는 최기숙,「18세기 여성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여성문학연구』제3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35-37쪽을 참고.)

첫째, 『내훈』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서 완성하는 존재로 서술되었다. 모성 또한 본성이 아니라 배워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실천성으로 서술되었다.[18]

> 사마온공이 말했다. "여자는 여섯 살에 소소한 여자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일곱 살에 『효경』과 『논어』를 외우고, 아홉 살에 『논어』와 『효경』에 『여계』 등의 글을 강론하여 큰 뜻을 대략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간혹 딸에게 노래와 시를 짓고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땅치 않다."[19]

위는 여자 아이가 배워야 할 세목을 서술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여자/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로 상정한 사례다. 여성이 배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모범으로 중국의 역사와 경전을 인용했는데, 이는 '여자 되기'가 유교적 이념과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 통제되었음을 방증한다. 『내훈』의 저자인 소혜왕후는 유교의 경전과 교훈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 책이 전통과 역사, 이념과 윤리에 근거한 텍스트이며, 주관적 이해나 관념, 감정의 소산이 아님을 명시했다.

> -「내칙」에 말했다. 무릇 자녀를 낳으면 여러 유모 중에 마땅한 사람을 선택하되, 모름지기 너그럽고 조용하며 자혜롭고 온화하며 공경하고 삼가며 말이 적은 사람을 구하여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20]
> -(필자: 여자아이는) 열 살이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온

17 『내훈』에는 인간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한 소강절의 발언이 인용되는데, 이 중에서 상품의 사람(上品之人)은 가르치지 않아도 선한, 좋은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다(『내훈』, 50; 76쪽).

18 『내훈』에는 남성도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성취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된다. 여형공이 아버지 정헌공과 어머니 신국부인, 엄한 스승 초선생의 인도로 덕성과 기량을 성취(德器成就)한 사례를 서술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내훈』, 258쪽).

19 『내훈』, 246쪽

20 『내훈』, 243쪽.

> 순하게 듣고 따르며 삼과 모시로 베를 짜고 실과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비단과 명주를 짜고, 이렇듯 여자의 일을 배워 옷을 짓는다.[21]

『내훈』은 어머니의 역할과 도리, 의무를 서술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나 태도, 역량이 저절로 습득된다는 관점을 보이지 않았다. 위에서 어머니가 할 일을 열거한 것은 모성을 본성이 아니라 의무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내훈』에서는 독자, 즉 미래의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사랑(愛)과 교육(養)을 강조했다.

> -이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랑하면서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자라서 어질지 못하게 된다. 자식의 뜻을 따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방종하면 곧 조심하도록 시키며, 자식의 악함을 두둔하지 말고 한 번 악을 행하면 곧 매를 쳐야 할 것이다.[22]

『내훈』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세목을 소개해서,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이며, 그 바탕이 되는 사랑은 여성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내면화한 감정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기로 한정되지 않고 평생 유지된다고 전제했다. 재상인 아들에게 청렴을 가르친 제나라 전직자의 어머니, 당나라 최현위의 어머니에 대한 서술이 이에 해당한다.[23] 성인 아들을 충고한 어머니에 대해 왕이 칭찬하고 보상한 사례는 모성을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한 국가 관리에 해당한다. 이는 모성이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문화정치의 영역이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내훈』에서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인 태임(문왕의 어머니)의 행실을 모범으로 삼는 태교를 강조했다. 자식을 잉태하자 바르게 처신해서 재주와

21 『내훈』, 2011, 244쪽
22 『내훈』, 249쪽.
23 『내훈』, 265-268쪽.

덕이 뛰어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다.[24] 실제로 태임의 태교가 자녀의 인격과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증은 없기에, 행위와 결과의 인과성을 입증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보편적 진리처럼 강조되었다. 이때에도 어머머니로서 태임의 태도를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태교라는 훈련을 통해 얻은 결과로 이해했다.

넷째, 『내훈』에서는 모성을 '본성'이나 혈연적 친연성에 국한하지 않고, 윤리, 규범, 도리가 매개된 사회적 개념으로 접근했다. 중국 역사상 의로운 계모의 일화가 이를 입증한다. 예컨대, 제나라의 계모는 친자와 전처소생이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어 직접 살해자를 택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친자를 지목했다. 전처소생의 양육을 당부한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다. 위나라 망씨는 전처의 아들 중 하나가 법을 어겨 죽게 되자, 걱정과 슬픔으로 몸이 말라가면서도 그를 구하려 했다. 전실 소생의 아들은 평소에 계모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다. 망씨는 자애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를 알게 된 왕이 사면했다.[25] 한편, 주애 고을에는 구슬을 소지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령의 후처가 구슬을 버렸는데,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 몰래 경대에 넣었다. 이것이 발각되자, 전처 딸과 계모가 서로 자기 소행이라고 했다. 이에 수령은 모두 용서했다. 나중에 아들의 소행임이 밝혀졌다.[26]

위 사례들은 혈육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는 윤리와 이념, 가부장제의 문화적 힘을 시사한다. 전처의 아들들은 계모의 자애와 의에 감화되어 정동적 변환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계모를 도운 것은 친자가 아니라 전실 딸이다. 계모가 혈육보다 의리를 존중했을 때 국가의 지지와 보상을 받았고 자녀도 감화되었다. 이런 스토리는 모성의 발현을 혈연적 본성이 아니라 습득된 감정의 훈련, 이념과 윤리가 매개된 사회적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다.

〈내훈〉의 '모의장(母儀章)'은 모성을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이념과 윤리에 조율되고 통제된 훈육과 정향의 결과로 서술했다.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어머니 되기'를 강조했으며, 희생적이고 자애로운, 사랑을 주며 돌봄을 행하는 모성을

24 『내훈』, 251쪽.
25 『내훈』, 262-263쪽.
26 『내훈』, 271-273쪽

천성이나 자연으로 여기지 않았다. 전근대(조선시대)에 모성을 여성의 타고난 본성으로 간주했으리라는 현대적 이해는 정확히 오류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모든 포유류의 특징이 아니며,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내분비적 변화에 수반되는 본성도 아니다. 출산 후에 새끼를 돌보지 않는 모성도 존재한다.[27] 인류는 이러한 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친자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모성을 범죄로 분류했는데, 이는 반-여성적이라거나 반-본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인간적이며, 반-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인권이 온전히 가정과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임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인간성 또는 인륜성을 젠더적으로 구분해 '인륜을 배반한 여성'을 '반/모성'으로 명명하고, 가정을 혈연 집단의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적 공간으로 성역화하는 것이 생명학적/인권적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아동과 어머니-여성의 모두에게 사회적 이해 차원의 모순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3 조선시대 모성의 분할과 대리-수행, 신분제와 착취의 딜레마

모성을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정체성이자 소명으로 간주하는 한, 출산 경험이라는 신체성, 출산한 자녀와의 혈연성을 모성 정체성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모성이란 자녀에 대한 사랑, 헌신, 돌봄 등의 개념, 감성, 실천과 결부되어 여성-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확정하는 문화정치의 힘을 발휘했다. 그런데 이른바 모성의 내역으로 간주된 일련의 자질은 출산 이후 여성이 빠르게 신체적으로 습득한 경험 '지'(역할, 교양, 기술)에 속하며, 노력을 통해 연마된 태도이며 자질이자 역량이다. 모성을 남성/여성의 계급구조를 은폐시킨 채 여성을 '사랑의 노동', 즉 남편과 자식에 대한 헌신으로서 가사 노동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다.[28]

현대 사회에서 고용된 육아(보모, 유모, 육아도우미 등)는 기술적, 역할적 대

27 새끼를 돌보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성이 모든 동물 종의 본성으로 논의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73쪽; 164쪽을 참조).

28 모토하시 리에, 앞의 책, 17쪽.

행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모성에 근접하거나 유사한 사랑, 헌신, 친밀감, 친절, 다정함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모성이 신체적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서적, 심리적, 감정적 분할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게 연결된다는 사회적 이해를 반영한다. 모성의 분할은 신체, 정서, 감정, 심리를 교차하여 수행되며,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 아이는 낳아준 어머니와 양육자(계모, 유모 등)가 다를 경우, 관계 친밀도와 제도적 연결성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둘 다 친밀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관계 경영법을 습득한다. 이러한 모성의 대리, 협력, 분할은 인간 종만의 고유성이 아니라, 일부 동물 종에서도 표준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29] 모성이 수행되는 과정상의 특성은 근대 이후, 기술산업시대의 특성이 아니라 전근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이때 어머니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모성성을 발현하는 모성 주체나 대리적으로 모성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모성의 수혜를 받는 자녀들은 다양한 모순과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신분제가 작동하던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신분제의 위계(여종-유모), 일부일처제, 호적제(친모, 계모, 입양, 후사 등) 등의 역사적 요인이 모성의 분할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수행 주체와 수혜자, 사회 간 상호작용에 모순과 불일치를 야기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성에 대한 이해의 역사·사회적 모순과 비대칭성, 딜레마를 이해하는 모델 케이스로 제안한다.

먼저, 조선시대에 모성의 수행에 대해 논의하면, 당시에 모성에 대한 이해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혈연적 친자에게 발휘하는 본성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유와 육아를 보조/대리/위임받아 수행하는 계모, 전실 자식이나 첩의 자식을 키운 정실, 불임으로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도 자녀 양육, 자애로운 심성, 실질적 돌봄 등, '모성'이 발휘될 수 있고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29 여왕개미를 비롯해 늑대, 들개, 코끼리, 마모셋, 인간 등 포유류 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협력하는 '대행 어미'가 있다('대행 어미'란 'allomother'의 번역어로, 'allo'는 '~이외의'라는 뜻으로, 혈연 부모 외에 아이를 기르게 도와준 모든 돌봄꾼을 의미한다). 유모 고용은 자연에 사례가 있으며, 고도로 창조적인 종의 사례다(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121; 161-162; 206쪽).

팽윤의 첫째 아내인 의인 한씨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입양한 아이를 친아들처럼 길렀다.[30] 김이진의 아내 유인 황씨(1734~1703)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 아들 학순을 사망한 시동생의 후사로 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나을 것이니,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라고 했다.[31] 상주 황씨는 전실 자식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기록되었다.[32] 양육이 모성의 역할이자 태도로 간주되어, 위임되고 대체될 수 있으며, 혈연성과 무관하게 발휘될 수 있다고 전제했고, 친모보다 나은 양모의 모성도 인정했다. 이러한 사례는 모성이 반드시 출산이라는 신체 행위와 직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자질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모성이란 후천적으로 습득해서 발휘될 수 있는 역할이자 능력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사회는 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의 기술이나 돌봄 능력, 사랑의 감정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단, 소설이나 구비설화 등 서사문학에서는 '악녀인 계모'의 형상을 통해, 모성의 완결된 형태나 요소를 갖추지 않은 여성을 사회 악으로 구성하는 상상적 공감대를 형성했다.[33] 모성은 단지 희생, 헌신, 사랑의 총체로서 여성에게 내재된 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전통 서사에서는 아이의 존재 자체나 양육. 돌봄 노동을 거부하려는 심리적, 행동적 경향 자체를 모성의 범주 안에 포함하지 않고 '악인형 계모'로 영역화하여 문화적 적대 요인으로 구분했다.[34] 모성의 '부정적' 측면을 모성의 일부가 아닌 반모성으로 간주해, 친모가 아닌 '악녀인 계모'

30 蔡彭胤,「宜人韓氏墓誌銘」,『希菴集』.

31 ''生哀其弟履泰早死, 欲以其子學淳與爲後, 則孺人亦一言決決無難色. 旣歸, 輒忘之曰: "其母之愛之也, 逾於我, 又何念焉?"' (魚有鳳,「孺人黃氏墓誌銘」,『杞園集』.)

32 崔昌大,「貞敬夫人尙州黃氏墓碣銘 甲申」,『昆崙集』. 후처가 전처의 소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표현은 근대초기까지도 모성을 설득하는 유력한 표현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장지연이 〈매일신보〉 3242호(1916년 7월 11일 화요일)의 [일사유사]에 소개한 '貞夫人張氏' 등.

33 계모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고소설 〈정을선전〉,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최기숙,「'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고소설연구』 제22호, 2006 등을 참고.

34 융을 연구하는 가와이 하야오는 민담에서의 파괴적 계모, 마녀의 형상이 어머니에 내재된 또 다른 성향을 상징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가와이 하야오, 고향옥 역,『민담의 심층』, 문학과지성사, 2018).

의 형상에 투영시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은 '불완전'하기에 모성 또한 완전하지 않다. 일련의 대하소설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부모(계모 포함)에 대해 순종하거나, 바른길로 이끌기 위한 자손의 처신이 서술되는데, 부모의 '악'보다는 자식의 순종과 개유를 통한 부모의 '감화'와 '개심'에 강조점을 두었다.[35]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에, 모성 또한 불완전할 수 있다는 이해가 공감대의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모성의 부정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역설적으로 모성이 이성으로 통제해야 하는 경험과 인지의 영역이며,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자질이라고 이해했음을 입증한다.[36]

둘째, 조선시대 양반가의 유모는 대체로 여종이 담당했기에, 유모와 젖을 먹는 노주의 아기(양반) 사이에는 신분적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여종-유모의 젖을 먹은 아기는 유모의 젖 때문에 존재 가치가 천해진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조선 사회는 수유와 양육을 대리/협력 수행하는 여종-유모의 존재를 통해 모성의 분할을 인정했지만, 유모의 신체나 활동에 복합된 태도, 감정, 교양, 지식이 젖을 먹는 양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반가에서 유모를 택할 때는 신체 건강은 물론 성격과 품성을 고려했다.[37] 사실상 여종-유모가 양반-아기에 미치는 문화적, 정서적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종-유모와 양반-아기라는 두 개인을 연결하는 '젖'은 신체, 정서, 인격, 문화와 단절된 물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교차하며 연결하

35 〈완월회맹연〉, 〈성현공숙렬기〉, 〈조씨삼대록〉 등, 해당 작품의 논의에 대해서는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관계 연구 (3): 잘못한 부모에 대응하는 자식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52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69-94쪽을 참고.

36 에이드리언 리치는 아이의 욕망이 자신의 욕망과 충돌할 때 겪었던 고통을 서술하고, 영아를 살해한 친모의 절망감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바 있다(에이드리언 리치, 앞의 책, 21-23쪽).

37 예컨대 이문건은 손자를 위해 유모를 택할 때, 수유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 이외에 품성을 고려했다. (婢訥叱介亦願奉養不云憚, 可喜. 婢春非雖有兒, 乳汁不滋, 又甚性險, 不令乳之.. 李文楗.『默齋日記』1551年 一月 六日甲午, 晴微陰). 수유 능력 이외에 인격성을 중시한 이유는 유모의 품성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 여종의 젖과 눈물, 로봇-종의 팔다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205쪽을 참조.

는 사회적 연결의 매개다.

양반-아기는 단지 여종-유모의 신체에서 나온 젖을 먹은 것만이 아니라, 여종-유모로부터 사랑, 진정성, 감동, 헌신을 느끼는 감성적 교류를 했고, 인격적 만남을 경험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 여종-유모의 젖을 먹은 양반-아기가 자라서 유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자비, 정성, 진정성, 헌신을 회상하고 감동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남긴 것이다. 17세기 조선의 문인 이익은 자신을 보살피고 키워준 유모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해 유모를 위한 제문을 썼다.[38] 18세기의 임성주와 김창협은 유모의 상례에 대해 논할 만큼 유모에 대한 예를 중시했다.[39] 젖을 주는 유모와 젖을 먹는 아기가 신체적 연결성을 형성하는 데서 나아가, 정서, 감정, 예의, 교양의 복합체로서 만나고 교섭했다.

여기에 모성의 분할, 또는 대리-수행이 갖는 딜레마가 있다. 모성은 명백히 대리 수행될 수 있는 분할성을 지니는 동시에,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기술이자, 감정 교육이 상호작용한 결과다. 제도적으로는 호적상의 어머니에 대해 혈연 여부를 떠나 모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인정했지만(계모, 양모), 신분적 격차가 있는 여종-유모에게는 모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문화적 인정은 하지 않았다. 여종-유모가 양반-아기에게 한 수유와 양육은 양반-어머니의 역할을 협력, 대리 수행한 것이기에 사실상 모성의 분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모성으로 명명되지 않았고, 노주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이행, 또는 노동으로 간주되었다.[40] 양반가의 유모는 수유가 가능한 출산 직후의 여종이 채택되었기에, 일부 여종은 노주의 아기를 위해 수유하고 양육하는 사이에 자신의 아기가 병에 걸려 죽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여종-유모를 구속하는 신분제의 위계가 여종-어머니

38 李瀷, 「祭乳母文」, 『星湖全集』

39 '〈가례〉에서 대부와 사를 구분하지 않고 대개 젖을 먹여 기른 서모를 위해서는 소공(小功)을 입고 유모를 위해서는 시(緦)를 입는다고 했으니, 지금 당연히 따라야 한다(故家禮不分大夫與士. 而槩爲庶母乳養者服小功, 乳母服緦, 今當從之)'. (任聖周, 「儀禮 辛酉壬戌」, 『鹿門集』); '聞遭金姥之喪, 驚歎. 服制, 進士所論固然, 而乳母服則太輕. 考見喪禮備要小功條, 士大夫於賤人, 養己者服小功, 乃國制也. 今當依此爲是矣.' (金昌協, 「答濟謙 癸未」, 『農巖集』)

40 1780년도의 경찰 자료에 따르면 18세기에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아기의 98퍼센트는 유모에게 보내졌다(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42-43쪽). 아시아와 유럽이 비슷한 시기에 모성의 분할에 대한 이해와 운영, 실천이 공존했다.

로서 친자를 돌보는 의무를 압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유모는 분할된 모성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젖의 대리 수급자로 지목되어, 노주가의 명령에 응하는 형식으로 친자에 대한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모성의 분할이 신분적 비대칭성 속에서 발생했을 때, 협력이나 위임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이유다. 이는 모성 자체가 신분제라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이 교차하는 복합적 매개임을 시사한다.

육아 과정에는 담당자(친모, 계모, 유모)의 육체 뿐 아니라, 윤리와 교양, 상식 등 인격성과 활동성, 지성이 매개되는데, 여종-유모에게는 이에 대한 명시된 인정이 없었으며, 제도적 어머니(친모, 계모)에게 부여되는 어머니라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테드 창의 소설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41]에서 아기 양육을 위해 고안된 기계식 자동 보모가 단지 수유, 재우기, 기저귀 갈기 등 모성의 기능적 역할을 대체하도록 고안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소설의 아기는 결국 기계에 부적응하여 사망하거나(여기에 기계 사용자의 무단 개조라는 자율성이 부정적으로 매개된다), 기계에 지나치게 적응하여 인간과의 소통 능력을 상실한다. 결과는 전량 폐기다. 테드 창은 유모라는 존재가 기능으로 환원되거나, 아기의 성장이 기성세대의 기대 수준에 대한 적응으로 환원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기계식 보모라는 은유적 장치를 통해 풍자한다. 조선시대의 여종-유모는 신체성, 영혼, 사회적 관계가 총합된 존재임에도, 양반-아기의 돌봄이라는 기능적 존재로 이해되어 마치 대체 가능한 기계처럼 여겨져, 관계성, 인격성, 교양, 정서, 윤리, 존재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유모의 사후에, 성장한 양반-아기가 서술한 애도의 글은 둘 사이에 신분제의 위계를 넘어선 인격적 만남과 감성적 교류가 실재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성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행위가 수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수행되며, 사회적 승인을 통해 완성되는 문화정치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반 친모-여종 유모-양반 아기' 사이에 작동하는 신분적 비대칭성이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하거나 제도적 인정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41 테드 창, 김상훈 역,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 『숨』, 엘리, 2019.

역할로서의 모성은 여성 신체의 고유한 본성이 아니라 학습된 능력이며, 일정 부분 대체 가능한 영역이다. 전근대 시기의 대체 모성은 신분제와 가부장제의 관계망 안으로 수렴되었다면, 근대 이후 대체 모성은 혈연적 관계망 및 자본을 매개로 한 제도적, 산업적 관계망으로 수렴된다. 모성성을 양육 자원의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사유할 수 있는 이유다. 아기(아이)에 대한 돌봄, 헌신의 수행은 개인차가 있는 스펙트럼이며, 다양한 대체 인력과 기술(다양한 대행 모성 및 모성 분할의 테크놀로지)이 매개된 네트워크적 실천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실상은 무엇이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AI가 상용화된 시대에 모성의 분할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 4 포스트휴먼 시대의 모성 장치와 테크놀로지

현대사회의 각종 분야에서 분업화된 시스템은 산업, 교육, 정치 등 제반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신체성 내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혈연 어머니가 감당하던 수유와 양육은 유축기와 냉장고 등을 통해 공급과 대행의 수월성을 확보하거나, 분유와 우유를 비롯한 제품화된 유아식과 유아 관련 산업의 각종 생산물로 대체되고 있다. 육아 또한 가정 안팎에서 공적으로 또는 민간 차원에서 유-무상으로 수행되는 각종 기관 및 도우미의 협력과 대체 수행으로 이행되는 추세다.[42]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아동 기관은 어머니와 선생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유보통합적[43] 기관으로, 모성성이 육아와 교육을 겸비하며, 사실상 분할 가능

42 예컨대, 2020-2021년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가 돌봄서비스는 2020년 기준 24,469명이며, 2021년에 25,917 명이고, 서비스 이용가구는 2020년 59,553, 2021년 71,789이다.(최윤경,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육아정책포럼』 72, 2022, 19쪽.)

43 보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정치, 사회, 교육적 이슈를 통칭하는 용어다(임부연, 「유보통합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 연구』 제13권 1호, 2023, 103쪽). 영유아 교육에서는 '돌봄'이 '교육(배움)'적 행위이며, 교육과 다르지 않다는 논의도 전개되었다. 0세 교사의 돌봄 행위를 '신체·정서·정치·인식론적' 돌봄의 통합적 과정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이상은 정선아·박보영, 「0세 영아반 교사의 '돌봄행위'(caring)에서 돌봄통합교육과정 수행성 보기」, 『생태유아교육연구』 제22권

하다는 것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승인한 결과다. 한국 정부는 국가수준의 평가인증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44] 이는 모성의 분할이 정보화되고 있으며, 국가를 매개로 제도화되고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 자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육아와 결부된 AI에 대한 연구[45] 및 유튜브 육아 등 '모바일 육아(Mobile Parenting)'와 '디지털 육아(Digital Parenting)'[46]에 대한 논의는 출산한 신체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간주되어 모성으로 간주되던 육아의 영역이 사회적, 교육적, 제도적, 산업적, 기술적으로 분화되고 자본화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최근에 심화된 저출산율은 여성이 '비자연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자연적인 것에 대한 통념적 기대는 여성이 무엇을 원한다고 가정되어 있는 신화와 미신

---

2호, 2023, 2-5쪽을 참조. 현재는 돌봄의 대상자에 따라 영유아의 경우, 교육적 관점이 강조되고, 노인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의 의미가 강조된다. 전근대 시기에 여성이 수행한 돌봄의 범위는 영유아로부터 아픈 가족, 시부모, 친척과 마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들이 교육자로 인정된 대상은 영유아로 한정되며, 그조차 신체적 보육에 비해 공식적 인정이 미미하다.

44 평가인증제도의 통과 기준선이 100점 만점에 75점으로(보건복지부, 2013)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인증 결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다(김지혜·이대균,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2권 1호, 2013, 170쪽).

45 예컨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아 정보 제공 서비스(장선혜 외, 「AI 스피커를 이용한 육아 정보 제공 서비스」, PROCEEDINGS OF KIIC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19. 6.) 및 일상 모티터링이 가능한 AI 디스플레이 스피커와 실시간 연동되는 모바일폰을 기반으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태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육아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유리에 외, 「AI 일상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육아 멘토링 서비스 제안」, 〈한국 HCI 학술대회〉, 2022-2, HCI학회, 2022, PP.75-81.) 등을 들 수 있다.

46 김은진, 「'유튜브 육아' 연구: 육아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과 통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5권 3호, 2021 등. 실제로 만 13세 이하 유아동 중 23.7%가 만 3세 이전에 스스로 채널을 선택해 스마트폰을 시청한다(정용찬·김윤화,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0 [김은희, 2021, 42쪽에서 재인용]). 모바일 육아란 육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며, 디지털 육아란 양육자가 육아 과정에서 아동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 대해 취하는 태도나 규제로 정의한다(김은진, 위의 글, 44쪽).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47]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이의 출생을 더 이상 '성별이 다른 두 부모가 성행위를 한 결과'로 추정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서 있다.[48] 동성 파트너와 결혼해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김규진 씨의 사례[49]는 혼인이나 성생활과 무관한 출산 스토리가 허구적 상상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 세계 안에 발생하는 변화된 모델임을 시사한다. 현대사회에 실제로 작동하는 모성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신체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사물-기술 간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성의 정의 및 어머니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사유와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첫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산업적, 문화적 분화와 모성성의 분할이다. 시/부모나 직계 가족에게 육아를 위임한 경우는 모성의 분할이 가족 장 안에서 실천된 사례이며, 육아를 위해 고용된 도우미의 존재는 모성의 분할이 산업화된 결과다. 양자 모두 자본화의 속성을 지니며, 이는 한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어머니의 능력과 실천에 대한 기술적 대행으로서의 테크놀로지이다. 기술이란 조선시대의 언술 구조 속에서 '재덕(才德)'이라는 어휘의 '재'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는 인격적 요소인 덕과 균형을 이루는 학식과 능력을 의미했으나, 여성에게는 권장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비판적 담론 구조 속에서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50] 한편, 가정 내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각종 노동에 해당하는

47 세라 블래퍼 허디, 앞의 책, 38-40쪽을 참조.

48 프랑스는 2021년 비혼 여성과 동성 커플에게 시험관 수술을 합법화했다. 43살 미만의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2023년 10월 현재, 한국에서는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기증한다(이상은 [단독] "언니 봐봐, 여기 진한 두 줄"…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여성 : 사회: 뉴스: 한겨레 (hani.co.kr. 2023.6.30; 2023.7.5.)

49 김규진과 김세연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김세연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이상은 앞의 한겨레 신문 기사. 2023.6.30; 2023.7.5.) 김규진 씨는 2023년 8월 30일 딸을 낳았다.(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두 엄마 모두 닮았어요"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023.8.31.)

50 남자에게 재능은 덕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여자에게 재능은 덕을 해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재덕겸전(才德兼全)'은 남성의 미덕으로, '무재시덕(無才是德)'은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고전 문헌에서 여성의 '재'는 학식·지식·사장(詞章)·재산

‘여공’에도 기술과 재능이 요구되었지만, 이를 직분과 품성의 언어로 수식함으로써, 여성에게는 능력의 어휘를 부여하지 않았다.[51]

그러나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행자가 배우고 단련해야 하는 일종의 지식이자 기술이다. 중요한 것은 모성 수행을 둘러싼 담론의 성향이며, 그러한 담론의 생산 주체 및 그 성격에 대한 맥락적 해석이다. 예컨대,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육아와 관련해 모바일, 유튜브, 디지털 육아에 대한 담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체는 학계(18.5%)가 아니라 산업계(65.8%)이며,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것(21%)이 아니라 관련 업계 동향 및 서비스 소개(67.7%)다.[52] 디지털 네이티브의 보육이 산업화, 자본화된 맥락에 기인한 결과다. 이러한 정황은 (전)근대 시기에 모성의 분할 작동이 수행되었지만, 친모와 계모를 윤리적 선악으로 대비시켜 가부장제의 일부일처제 논리를 강화하는 서사문학이 향유되거나, 여종-유모가 모성의 역할을 대리/협력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의 위계에 강박되어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하지 않았던 역사적 현실과 상통하는 맥락이다. 이들은 모성, 부모 역할, 육아와 관련된 일체의 담론이 당대의 지배 이념(조선시대 성리학적 이념, 현대의 자본주의)이나 가치(조선시대의 젠더 편향성, 현대의 물질화, 자본화)에 통제되어 확산되었음을 통시적으로 방증한다.

셋째, 출산 자체에 의학과 테크놀로지가 개입되는 경향이다. 아시아에서는 『시경』에 언급된 ‘아버지는 낳고 어머니는 기른다[53]’는 표현이 클리셰처럼 사용되어 어머니의 역할에 출산보다 육아가 강조된다. 이슬아 작가는 소설 『가녀장의

---

관리·언어·정세 파악 등의 의미 범주를 지니는데, 그 사용처는 타인을 위해 발현하는 보조적 형태로 한정되는 경향성을 지녔다. 이는 이는 ‘재’로 상징되는 지식과 학식에 대한 젠더 차별적 이해에 해당한다(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한국학』 제29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36-343쪽).

51 조선시대 여성의 역량을 인정하는 언어적 표현과 수사학이 부재했음에 대해서는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144-148쪽을 참조

52 최이숙·김반야, 「‘위험한 미디어 vs 든든한 육아 도우미’: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 이용 담론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2021, 515-525쪽.

53 ‘父兮生我, 母兮鞠我.’(『詩經集傳(下)』 卷十二 小雅 小旻之什 二之五 蓼莪.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10).

시대』에서 “아버지는 낳고 어머니는 기른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엄마가 저 낳았는데요.”라고 반박하는 주인공(손녀)을 형상화했다.[54] 임신은 남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된 것은 유교 이념과 가부장제의 협치에 따른 문화 정치의 소산이다.[55] 출산 및 양육과 유아 교육의 거의 전부를 여성이 전담하던 시대로부터 산부인과, 소아과,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행하거나 대리 수행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의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와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테크놀로지가 개입하고 정보화, 산업화가 매개되어 냉동 난자, 정자 기증, 대리모[56] 등을 통한 결혼 없는 임신, 성관계 없는 출생이 가능해졌다. 이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취약하며, 이를 둘러싼 현실 제도, 법, 문화, 정서 등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미비하다.[57]

넷째, 모성의 속성 또는 역할, 능력으로 규정되어 온 세부 내역에 대한 젠더 층위의 해체다. 헌신, 사랑, 진정성, 돌봄은 여성적 능력이라거나 모성의 속성이 아니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간적 덕목이다. 김초엽 작가의 SF소설 「스펙트럼」에는 친절함, 배려, 상냥함을 갖춘 무리인(외계인)과 조우한 우주인 희진의 스토리가 서술된다.[58] 이 텍스트는 타자에 대한 환대의 속성을 지닌 사랑의 감정과 돌

54 이슬아, 『가녀장의 시대』, 이야기장수, 2022, 8쪽.

55 남녀가 생명을 만드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등한 듯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없는 ‘精’이라는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배제하는 담론 구조를 형성했다(하여주,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 『東醫寶鑑』과 『歷試漫筆』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제109호, 부산경남사학회, 2018, 8-11쪽).

56 이들은 국가에 따라 법적인 허용 여부가 상이하다.

57 젠더 및 모성에 대한 이해와 가족 개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대응은 여전히 백래시, 또는 퇴행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결혼, 젠더, 가족, 모성 등은 사회적 수행의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상호 교차하여 복잡한 연결성을 지닌다. 수전 스콰이어는 1995년에 재생산하는 몸이 포스트휴먼적인 것이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자궁 밖에서 인공수정된 태아, 대리모, 임신한 남성이라는 형상들을 통해 나타나는 테크놀로지가 투입된 재생산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로지 브라이도티, 윤조원 외 역,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아카넷, 2024, 279쪽에서 재인용).

58 김초엽, 「스펙트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22(2019), 76쪽. 이 소

봄이라는 행위가 모성에서 연원하거나 모성 자체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 어슐라 K. 르귄의 소설『어둠의 왼손』에는 모성 본능 대신에 '어버이의 본능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하는 세계가 묘사되며, '모성과 부성 본능을 구별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인다. 아이를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부모의 본성이 반드시 성과 관련된 특징은 아닌 듯하다….'고 서술된다.[59] 특정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고, 어머니인 동시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센인은 SF 소설에 제안된 일종의 젠더 실험이지만, 여기에 제안된 '어버이성'은 이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일반화된 담론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으로는 젠더와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이해, 감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역할을 여공이라는 직분(duty)으로 간주하고, 노동의 언어가 아닌, 윤리나 품성의 언어로 표현하여, 힘든 노동의 대체, 분할, 협력에 대한 언어적 소통과 사유, 문화와 제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폐제'시킨 사례를 고려한다면, 모성의 정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모성의 사회적 이해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은 여성, 가족, 사회, 인류를 사유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주부화, 전업모를 정당화하는 '근대적 어머니의 규범'[60] 등은 실재하는 다양한 어머니의 역할과 수행성을 배제하고, 여성과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축소적으로 확정했다. 이는 젠더를 매개로 한 문화 정치와 생명정치의 협치 결과다. 저출산, 산업화,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에, 모성 신화로의 재귀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설집은 2022년 4월 20일 현재 42쇄를 찍었을 정도로 독자층이 두텁다. 말하자면 이 소설이 제안하는 상상력과 공감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김초엽의 소설에는 여성 우주인, 여성 과학자 및 그들의 여성 후손이 등장한다. 이러한 설정은 우주인 부-자 관계를 다룬 〈애드 아스트라〉, 우주인 부-녀 관계를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 및 이 영화들에서 우주선에 탑승한 성별, 인종. 국적 분배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적 시사점을 준다.

59 어슐러 K. 르귄, 최용준 역,『어둠의 왼손』, 시공사, 2014, 149쪽. 마거릿 애트우드는 어슐라 르귄이 이 소설에서 언급한 '앤서블'이 현재는 더 이상 SF의 가공물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는 현실임을 언급했다(마거릿 애트우드,「번역의 땅」, 이재경 역,『타오르는 질문들』, 위즈덤하우스, 2022, 353-354쪽). SF의 상상이 현실화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상상력이 현실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60 모토하시 리에, 앞의 책, 85쪽.

다섯째. 모성을 여성의 신체 내적 요소로 한정하지 않고, 모성의 가치와 덕목을 여성에게 한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비혼,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려 글로벌 인구의 연령 분포가 재편되는 추세에 여전히 가족 중심주의의 모성 해석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더러, 비효율적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어머니가 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 이방인을 환대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어머니 노릇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까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낯섦과의 가장 강렬한 형태의 접촉"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61] 타자에 대한 돌봄, 환대, 사랑, 자비를 반드시 모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젠더화하기보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추고 훈련해야 할 공생의 덕목으로 재위치(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젠더 속박을 해체할 경우, 모성 담론은 인류애 담론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과 기계, 사물의 네트워크를 정립하는 새로운 윤리 안에서 해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여섯째, 어머니에 대한 문화적, 예술적 상징에 대한 성찰이다. 모성에 대한 원형적 비유로서 신체 부위인 '젖'을 가시화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모성 이해에 여전히 타당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예술적으로 창의적이고 보편적 설득력이 있는지를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조형 예술이나 회화에서 젖이 여성 신체의 일부로 가시화되는 것과 달리, 자궁은 문학에서의 상징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신화적 의미에서 여성의 자궁은 생식기라는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상징의 한 측면을 의미하는 심상이다.[62] 상징계에서 여성은 '수용적'이며 '담는 그릇'으로 표상되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아이를 담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월경혈을 아이로 변화시키는 능동적이고 강력한 사람이다. 여성과 모성을 둘러싼 축소된 의미, 생물학적 신체성에 제한된, 또는 왜곡된 상징성의 의미를 풍부하게 복원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63] 이때, 신화화된 모성 표상을 부정하거나 교정하는 소극성을 넘어서 '악한 모성'으로 곡해된 여성의 역량, 자연(감정적 존재)으로 표상된 여성성의 의미를 본원적으로 해체하고

61 재클린 로즈, 앞의 책, 183쪽.

62 에리히 노이만, 이유경 역,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0, 42쪽.

63 여성의 '젖'과 '자궁'에 대한 상징 해석의 변화에 대한 제언은 재클린 로즈, 앞의 책, 71; 164쪽을 참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모성을 본성으로 간주하고 어머니인 여성을 감정과 본능의 존재로 규정하여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모성/어머니의 정체성을 탈색하는 담론에 대한 비판과 여성 역량의 복원이다. 크리스타 볼프는 소설『메데이아, 또는 악녀를 위한 변명』에서 메데이아가 이아손에 대한 사랑(감정)에 빠져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고,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진 이아손과 정치적으로 협상하여 주도적으로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서사를 전개했다.[64] 이 소설은 메데이아가 남편에 대한 배신감(감정) 때문에 친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권 다툼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적에 의해 정치적으로 살해당했다고 설정한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원작에서 메데이아가 친자를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 라벨링되는 과정 자체가 가진 정치성과 음모 조작이라는 문제를 폭로했다. 크리스타 볼프는 이 소설에서 정치와 권력에 문맹인 여성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작가는 여성 인물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과 정치 구조를 간파하거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음모의 덫에 걸려 파멸하는 정치적 희생자로 형상화했다. 작가는 여성, 어머니, 모성이 결코 비정치적 존재가 아니며, 이들을 탈정치화하는 남성 중심적 담론 구조야말로 시대적 패착임을 폭로했다. 조선시대에도 여성인 어머니,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 아버지, 숙부 등 남성 가족에게 정치적으로 조언하여 집안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기록이 있다.[65] 여성, 어머니, 모성을 정치에 무관하거나 무능한 탈정치적 존재로 그리는 것이야말로 서사와 담론의 남성편향적 문화정치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초고령화시대에 노년기 여성의 정체성과 역량, 활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다. 현재의 모성 담론은 대체로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노년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노인에 방점을 찍어 논의되는 추세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여성의 정체성, 삶, 활동보다 의료보험, 사회복지, 국가 돌봄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층위에서 구성되는 모성 담론

64 크리스타 볼프, 김재영 역,『메데이아, 또는 악녀를 위한 변명』, 황금가지, 2021.

65 김주신의 어머니(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176:211a), 최석정의 아내 경주 이씨(1645~1712. 徐宗泰, 貞敬夫人慶州李氏墓誌銘, 晩靜堂集 (163:345b) 등.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최기숙, 앞의 책(2022ⓒ), 65-79쪽을 참조.

에는 사실상 연령의 상한선이 작동하며, 출산과 양육 개념이 중심을 이룬다.[66] 미즈무라 미나에의 소설『어머니의 유산』에는 노년이 되어 딸들에게 의지하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어머니가 골절을 입어 입원하게 되자 딸들 앞에서 "아아, 노리코 씨도 이제 끝장이야!"라고 말하거나,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라고 자조하다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천장을 보며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다.[67] 자녀에 대한 돌봄, 헌신과 무관하거나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늙은 여성은 '살아 있는 시체', 또는 '아기가 되어 버린 퇴행적 존재'로 묘사된다. 이른바 신화화된 '모성' 담론은 노년 여성을 이에서 배제하거나 노인 담론으로 포섭할 뿐,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여성성에 대한 현저한 축소, 모성의 신화화, 그리고 달라진 생애주기를 사유하는 여성 주체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의 배제다.

이른바 모성은 젠더 구분에 한정되거나 여성의 신체에 속박되지 않으며, 전근대로부터 현대까지, '개인-가정-사물-제도-테크놀로지-사회'를 교차하여 네크워크적으로 수행된다. 모성의 역할은 분할이 가능한 기술이자 역량이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복합성을 지닌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인식적 도약이나 제도적 변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실재하는 다양한 현실성을 수렴적으로 포괄하는 방식을 아울러 수행함으로써 정당한 역사문화적 위치성을 탈환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5 모성 스펙트럼과 네트워크, 새로운 윤리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시녀 이야기』에서 '시녀들'[68]이 출산의 도구가 된 것은 출산에 최적화된 신체의 소유자이기 때문이거나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단지 모순으로 가득 찬 제도와 문화의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출산 기계''가 된 시

66 예컨대, K-drama에서 결혼한 여성의 욕망을 다룬 〈SKY캐슬〉(JTBC 2018.11.23~2019.02.01.), 〈펜트하우스〉(SBS. 2020.10.26~2021.1.15) 등은 '학부형'의 위치에서 매개된 중년 어머니의 욕망을 파행적으로 구성한다.

67 미즈무라 미나에, 앞의 책. 31; 47쪽.

68 마거릿 애트우드, 김선형 역,『시녀 이야기』, 황금가지, 2018.

녀들의 삶을 사회가 문제없이 수용한 것은 그 과정이 '자연'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사회가 지배계급에 통제되어서다. 김초엽의 SF 단편소설 「나의 우주 영웅 이야기」(2019)[69]에는 출산 경험이 있는 비혼모 최재경이 우주비행사로 선발되어 신체개조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명을 어기고 바다로 뛰어드는 선택을 한다. 최재경의 뒤를 이어 우주비행사가 된 존재는 혈연의 딸이 아니라 동거하던 비혼모 김유진의 딸 가윤이다. Elizabeth Moon의 SF 소설 『잔류 인구』[70]에는 지구를 떠난 인류가 개척한 행성, 콜로니에서 새 행성으로 이주하라는 명에 따라 아들 부부를 비롯한 거주민이 이주할 때, 자발적 의사로 홀로 남은 70대 오필리어가 등장한다. 오필리어는 잔류 인구로서 콜로니에 남아 괴동물을 맞닥뜨리며 두려움과 대면하고 그들과 협력해 모험을 한다. 오필리어는 어머니로서의 여생을 택하는 대신, 괴동물과 동거하며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돕고 협상하며 70대의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괴동물과 오필리어의 동거는 과거의 경험과 결별한, 온전히 홀로 남은 싱글 노인 여성의 고군분투 인생 개척담을 은유한다. 스스로 괴동물의 이모로 자처하는 오필리어는 타자에게 그들의 '친구'로 비춰진다(오필리어는 '그들이 아이들보다는 나았다'[207쪽]라고 체감했다).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메세지는 "Be Kind" 즉 (스스로와 가족에 대한) 자비와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환대의 윤리다. 21세기의 작가들은 이미 모성 신화가 해체된 서사를 탈디스토피아적으로 구성하며, 혈연 가족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상상력을 제안하면서 동시대 독자/관객들과 전지구적으로 소통한다.[71]

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부장제, 가족주의, 이성애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제도적, 문화적, 법적으로 규율되는 담론적 현실이기에 자연이나 본성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 모성은 젠더적으로 할당된 여성 개인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출산, 육아, 돌봄 노동, 자비 등의 노동과 감정이 교차하며 수행되는 분

69 김초엽, 「나의 우주 영웅 이야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70 엘리자베스 문, 강선재 역, 『잔류 인구』, 푸른숲, 2021.

71 모성을 퇴행적 신파, 노스탈지어로 표현한 SF 영화 〈정이〉(2022)의 낮은 평점, 또는 저조한 흥행은 모성 해석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기대했던 관객의 실망과 무관하지 않다.

할 가능한 테크놀로지이며, 인간-사회-사물-제도를 가로지르는 네크워트적 실천이다. 이는 단지 포스트휴먼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전근대 조선시대로부터 인정되고 수행되던 사회적 실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을 여성의 본성으로 간주하는 담론이 재생산된 것은 그 내용을 규정해온 것은 남성 편향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도, 이를 근간으로 삼은 문화정치의 산물이며,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대한 불안이 투사된 문화적 퇴행의 징후다.

21세기에 모성에 대한 이해는 다층적, 다면적이다. '유아 살해'를 둘러싼 '반-모성' 담론이 환기하는 퇴행적 경향과 과학기술, 정보화, 산업화가 교차하여 성립하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개념의 해체가 공존하는 시대다. 임신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던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익명의 기증자에 의해 대체되고, 10여 개월의 수태에 수반되는 어머니의 노력과 경험이 신체적 분할(대리모. 나라별로 합법, 불법이 다르다), 기술적 이행(인공 수태, 인큐베이터)으로 대체될 경우, (부)모-자식 관계, 인간의 개인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교섭과 재규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의 일'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빌려온 시간'[72]을 남용한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정당화하는 직무유기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모성의 내역을 둘러싼 가치 평가나 이해, 사회적 인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출산과 육아의 의료화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모성, (부)모-자 관계, 개인의 정체성, 가족 간 유대의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감성적, 제도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모성의 역할을 출산과 양육으로 한정할 때, 사회가 외면함으로써 여성 자신에게도 박탈된 어머니인 여성의 욕구, 지향, 관계, 결여, 좌절, 실패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또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술정보화시대에 인간-AI-사물-사회의 네트워트를 재구성하는 방안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또한 '모성 신화'가 배제한 '늙고 병들고 힘 없는 모성'에 대한 주체, 가족, 사회는 어떠한 응답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한국이라는 국가, 인종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이미 전지구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72 지그문트 바우만, 조형준 역,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기』, 새물결, 2014.

의제다.

모성에 대한 의제는 담론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문학적, 상상적 차원의 혁신이 요청된다. 조선시대 『내훈』이 모성신화를 발신하는 모태가 되었다는 판단은 오류다. 오히려 『내훈』에서는 모성을 '태도'와 '역할'로 규정해서 '습득하는' 자질로 간주했고, 이를 당대적 이념과 제도에 부합하는 '모범'으로 제안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모성 신화의 모태로 삼는 것은 모성 신화를 부활하기 위해 전통을 곡해한 착오에 불과하다. 잘못된 신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거나 부활하는 것은 지적인 오류일뿐더러 변화하는 시대에 가하는 상처이고, 인권에 가하는 폭력이며, 퇴행을 정당화하는 모순의 반복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모성의 내용과 역할에 대해 젠더적으로 성찰하는 사유이며 기술과 네트워크의 창의적인 접속이다. 이에 대해 개인과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방법, 역할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이다.

## 참고문헌


기본 자료

한국고전문헌

『詩經集傳(下)』,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10.

소혜왕후,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김창협(金昌協), 「答濟謙」,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 한국고전번역원, 1996.

김주신(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한국문집총간 176, 한국고전번역원, 1996.

서종태(徐宗泰), 「貞敬夫人慶州李氏墓誌銘」, 『晩靜堂集』, 한국문집총간 163, 한국고전번역원, 1996.

이문건, 정근식 외 역, 『국역 묵재일기』, 경인문화사, 2019.

어유봉(魚有鳳), 「孺人黃氏墓誌銘」, 『杞園集』, 한국문집총간 184, 한국고전번역원, 1997.

이익(李瀷), 「祭乳母文」,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한국고전번역원, 1997.

채팽윤(蔡彭胤), 「宜人韓氏墓誌銘」, 『希菴集』, 한국문집총간 182, 한국고전번역

원, 1997.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 (https://db.itkc.or.kr)

미술 전시
루이스 부르주아 회고전, “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 일본 도쿄 모리 미술관[2025.1.5.일요일 관람].

소설
김초엽,「스펙트럼」,『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_____,「나의 우주 영웅 이야기」,『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이슬아,『가녀장의 시대』, 이야기장수, 2022.
린 틸먼, 방진이 역,『어머니를 돌보다』, 돌베게, 2023.
마거릿 애트우드, 김선형 역,『시녀 이야기』, 황금가지, 2018.
_____, 이재경 역,『타오르는 질문들』, 위즈덤하우스, 2022.
미즈무라 미나에, 송태욱 역,『어머니의 유산』, 복복서가, 2023.
어슐러 K. 르귄, 최용준 역,『어둠의 왼손』, 시공사, 2014
엘리자베스 문, 강선재 역,『잔류 인구』, 푸른숲, 2021.
요시모토 바나나, 김난주 역,『여행 아닌 여행기』, 민음사, 2023.
크리스타 볼프, 김재영 역,『메데이아, 또는 악녀를 위한 변명』, 황금가지, 2021.
테드 창, 김상훈 역,「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숨』, 엘리, 2019.
토니 모리슨, 송은주 역,『술라』, 문학동네, 2015.

영화
〈도희야〉 (2014. 감독: 정주리)
〈미쓰백〉 (2018. 감독: 이지원)
〈플로리다 프로젝트〉 (2018. 감독: 션 베이커)
〈애드 아스트라〉 (2019. 감독: 제임스 그레이)
〈인터스텔라〉 (2014.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2022. 감독: 다니엘 콴)

〈정이〉 (2022. 감독: 연상호)

TV 드라마

〈스카이 캐슬〉 (JTBC 2018.11.23~2019.02.01.)

〈펜트하우스〉 (SBS. 2020.10.26~2021.1.15

언론 보도 기사 (디지털 신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964090: 2023.7.27. 목요일 확인

부산일보, 2023.7.21.: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3011113803855

세계일보 2023. 1. 27, 10:08:22 수정: 2023-01-27 15:25:56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7504719?OutUrl=daum)

(https://www.nocutnews.co.kr/news/5964090: 2023.7.27. 목요일 확인

'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서울신문, 2006. 1. 20.

'"언니 봐봐, 여기 진한 두 줄"…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한겨레, 2023.6.30; 2023.7.5: 여성 : 사회: 뉴스: 한겨레 (hani.co.kr. 2023.6.30; 2023.7.5.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두 엄마 모두 닮았어요"', 한겨레. 2023..8.31)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023..8.31

단행본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가와이 하야오, 고향옥 역, 『민담의 심층』, 문학과지성사, 2018, 1-399쪽.

도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겸손한 목격자@제2의_천년. 여성인간ⓒ_앙코마우스™를 만나다』, 갈무리, 2006, 1-552쪽.

로지 브라이도티, 윤조원 외 역,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아카넷, 2024, 279쪽.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1-246쪽.

모토하시 리에, 이은주 역, 『포스트 젠더학의 가능성』, 소명출판, 2022, 17; 28; 32; 34; 74;75; 85-88쪽.

세라 블래퍼 허디, 황희선 역, 『어머니의 탄생』, 사이언스북스, 2010, 38-40;

42-43; 73; 121; 161-162; 164; 206; 331쪽.
에리히 노이만, 이유경 역, 『의식의 기원사』, 분석심리학연구소, 2010, 42쪽.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역,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2018, 21-23; 85-88쪽.
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숭배와 혐오』, 창비, 2020, 40; 71; 164; 183쪽.
지그문트 바우만, 조형준 역,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기』, 새물결, 2014, 1-320쪽.

논문
김언순, 「예와 수신으로 정의된 몸」, 『한국문화사 35-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경인문화사, 2011.
김은진, 「'유튜브 육아' 연구: 육아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과 통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5권 3호, 2021, 41-85쪽.
김지혜·이대균,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 『어린이미디어연구』 제12권 1호,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3, 169-202쪽.
유리에 외, 「AI 일상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육아 멘토링 서비스 제안」, 『한국 HCI 학술대회』, 2022-2, 한국HCI학회 2022, 75-81쪽.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한국학』 제29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33-368쪽.
임부연, 「유보통합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 연구』 제13권 1호, 2023, 102-128쪽.
장선혜 외, 「AI 스피커를 이용한 육아 정보 제공 서비스」, PROCEEDINGS OF KIIC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19.6. 397-399쪽.
정선아·박보영, 「0세 영아반 교사의 '돌봄행위'(caring)에서 돌봄통합교육과정 수행성 보기」, 『생태유아교육연구』 제22권 2호,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3, 1-30쪽.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소설연구』 제22호, 2006, 325-355쪽.
_____, 「숨기는 힘, 숨은 역량: '내조'의 경계 해체와 여성 존경 언어의 회복을 위하여」, 『민족문화연구』 제7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61-

300쪽.

_____, 「18세기 여성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제3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7-44쪽.

_____, 「'豹變'의 한국고전문학, 연구와 교육: 글로벌·디지털 환경, 젠더 감수성, (기계)번역을 경유하여」『고전문학연구』 제62호, 한국고전문학회, 2022ⓐ, 217-258쪽.

_____, 「여종의 젖과 눈물, 로봇-종의 팔다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181-219쪽.

최윤경,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 『육아정책포럼』 제72호, 육아정책연구소, 2022, 19-30쪽.

최은영, 「한국 여성의 모성 기획과 균열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1-313쪽.

최이숙·김반야, 「'위험한 미디어 vs 든든한 육아 도우미':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 이용 담론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515-525쪽.

하여주, 「조선시대 의학서로 본 여성 몸 담론: 『東醫寶鑑』과 『歷試漫筆』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109, 부산경남사학회, 2018, 1-40쪽.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관계 연구 (3): 잘못한 부모에 대응하는 자식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52호, 한국고소설학회, 2021, 65-107쪽.

## Abstract

Division of motherhood and technology, networks, and new ethics
- Via the discussion of motherhood between Chosŏn Era and modern times

Choe, Keysook (Yonsei University)

In this article, it is clarified that the intellectual and social understanding that motherhood was not a woman's innate nature but a socially trained quality and capability

was already formed and shared educationally in the Chosŏn society. In addition, in the post-human era where AI, machines and technology network and coexist with humans, motherhood is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motherhood being restructured into technology, role, and spectrum rather than identity is reflectively analyzed and argued. For this analysis, while reporting on mothers who committed infanticide in the media, the mothers who failed to reach motherhood were treated as 'anti-motherhood', and the structure in which the discourse positing 'motherhood' as nature was reproduced was analyzed. By analyzing women's education books from the Chosŏn era, it was highlighted that at that time, there was already a shared perception and imagination that regarded motherhood not as a woman's innate nature, but as a socially trained and acquired ability and skill.

Key words: motherhood, motherhood myth, anti-motherhood. motherhood discourse, nanny, Naehun, empowermemt

논문제출 / 2025.02.26.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